



美, 癌사망을 중 폐암이 으뜸

폐암이 여전히 미국에서 癌에 의한 사망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미국 癌협회의 최근 추계에 의하면 90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폐암이 50여명으로 가장 많고 간암, 위암, 췌장암, 자궁암은 10명미만, 결장암과 직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은 20여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자의 경우 폐암의 신규 발생건이 90년 10만2천건에서 91년 10만1천건으로 평행선을 유지한 반면 여성은 80년 3만2천건에서 91년 6만6천건으로 두배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92년에 16만8천명의 폐암환자가 새로 생기고 14만6천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87년이래 폐암으로 죽는 여성이 유방암으로 죽는 여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 40년동안 유방암은 여성이 사망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폐암의 경우 끊임없는 기침, 피가 섞인 가래, 만성기관지염, 가슴의 통증과 반복되는 폐렴의 경고증상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잘 나타나

지 않으며 폐암의 식별시기와 관계없이 환자가 5년동안 생존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저혈압, 정신질환 유발

저혈압은 만성피로와 현기증, 권태, 두통 등을 초래할 뿐아니라 우울증과 불면증, 초조,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과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홍콩의 明報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만성적인 피로감과 현기증, 두통 및 말할 때 우는 듯한 소리를 내는 증상이 있으면 대개 저혈압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사소한 일에도 잘 울고 불면증이 심한 증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수축혈압이 1백5mm 이하이면 저혈압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저혈압이 발견될 경우 즉각 약물치료를 받아 혈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저혈압이 권태, 초조, 우울증, 불안, 신경증 등 정신·심리적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 와서 저혈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오존고갈, 인체 저항력 약화 조레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오존층이 고갈되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바이러스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유엔의 한 보고서가 경고했다.

유엔환경개발계획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존층의 고갈로 자외선이 증가하면 이미 AIDS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AIDS병으로의 발전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자외선에 점차 많이 노출되면 감염의 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병을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연구가들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될 경우 AIDS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북반구의 오존층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고갈돼 가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지 부시 前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존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인 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계획보다 5년 앞당겨 오는 95년말까지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프랑스, 장기이식에 간염 등 검사 의무화

프랑스 보건당국은 최근 모든 장기이식의 경우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간염, 매독 등 특정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경고.

보건당국은 최근 관보를 통해 모든 인체조직, 기관의 이식에 관여하는 의료인은 기증자에 대해 AIDS1, AIDS2 바이러스, HTLV1, HTLV2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고 공시했는데 HTLV 바이러스는 성인 백혈병 및 임파선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또 의학적 도움이 개개 되는 '수정'의 경우 관계의사는 기증자에 대한 AIDS, HTLV바이러스 검사는 물론 간염 B, C형 및 매독검사를 추가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험관 수정을 위한 정자기증의 경우 관계의사는 이 정자를 미생물학적으로 검사, 감염여부를 판별해야만 한다고 관보는 덧붙이고 있다. ㉞

